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 프리미어리그 박지성·이동국 출국 인터뷰



## “홍명보 코치, 감독 능력 충분”

#### ◀ 지성 “나니와 주전경쟁 자신 있어”

“충분히 쉬었고 이제 주전 경쟁도 자신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 연골 재생수술에 따른 장기 재활훈련으로 피곤해 보일 법도 했지만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2007~2008년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개막(8월11일)을 앞두고 팀에 합류하기 위해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한 박지성은 공항 인터뷰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오랜 기간 쉬었던 것 같다. 그동안 오직 ‘복귀하면 잘 해야지’만 생각만으로 재활훈련을 해왔다”고 밝혔다.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맞춰 입은 박지성은 “팀에 복귀하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균형을 맞추는 훈련에 주력해야 한다”며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성은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의 야심작으로 팀에 새로 영입된 젊은 잉포워드 나니(21·포르투갈)와 경쟁 구도에 대해 “팀의 아시아 투어 경기를 제대로 못 봐서 나니의 플레이를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 맨유가 영입한 선수라면 충분한 실력을 갖춰 있을 것”이라고 칭찬하면서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나니와 주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실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며 “한국 팬들이 많이 응원해주는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한편 펠 베어백 감독의 사퇴에 대해서 “한국 축구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지도자였다. 사퇴했다는 게 너무 아쉽다”며 “홍명보 코치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훌륭하게 선수생활을 했던 지도자인 만큼 한국 축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 ▶ “골 찬스 살리는데 힘쓰겠다” 동국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시즌을 앞두고 주전 확보와 골 사냥이라는 목표를 향해 각오를 다졌다.

이동국은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아시아컵축구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다. 개인적으로 베어백 감독의 사퇴 역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영국으로 떠난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비슷한 시간에 다른 항공편으로 출국한 이동국은 새 시즌을 맞는 각오에 대해 “이번 시즌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많은 경기에 출전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10골, 20골을 넣고 싶지만 프리미어리그의 거친 수비수를 상대로 그렇게 많은 골을 기록하기란 쉽지 않다. 침착하게 골 찬스를 살리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팀 내 경쟁구도에 대해서 “항상 주전 경쟁에 대한 자신감이 갖고 있다. 새로 영입된 선

수들도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비슷한 입장”이라며 “경쟁에서 이겨야만 출전 시간이 보장되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에 도착하면 곧장 팀 훈련에 합류하게 될 이동국은 “미들즈브러의 전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해 아쉽다. 주말에 연습경기 일정도 잡혀있는 걸로 들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과 상의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달 중순쯤 생동기가 태어나는 데 직접 볼 수 없게 돼 아쉽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도 참 중요한 시기에 있다. 새로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 프리미어리그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국은 홍명보 코치의 올림피아드 팀 사령탑 선임 가능성에 대해 “홍 코치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다. 한국 축구의 장래를 위해 올림피아드에 젊은 지도자가 나서서 것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 베어백 감독 고별 인터뷰

2007 아시안컵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축구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난 펠 베어백(51) 감독이 그동안 함께 했던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코칭스태프와 오찬을 마지막으로 한국 축구와 인연을 접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감독직에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차기 올림피아드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성질이 아니다”며 함구했다.

베어백 감독은 2일 낮 동구 대평로 프라자호텔에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과 함께 한 환송오찬에서 “앞으로 몇 개월 재충전을 한 뒤 리그 여건과 인문 환경이 모두 새로운 곳에서 재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정장 차림으로 홍명보, 압신 고트비, 코사 등 코치진과 함께 오찬장에 들어선 베어백은 먼저 도착한 축구협회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베어백은 “우선 매일 선수들과 호흡할 수 있는 클럽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K-리그 팀의 제의를 받더라도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했다.

홍명보 코치가 유력한 차기 올림피아드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서 “홍명보나 고트비, 코사 코치는 한국 축구의 귀중한 자산이다. 그들이 남길 바라지만 내가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베어백은 한국에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을 묻자 “2002년 월드컵에서 폴란드를 이겼을 때였다. 당시 감독은

## “K-리그 감독 말을 생각 없다”



아니었지만 코칭스태프의 일원으로서 폴란드를 꺾으면 한국 축구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걸로 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힘든 순간에 대해서는 도하아시아게임 준결승에서 이라크에 패한 것과 아시안컵 예선 이라크와 홈경기에서 1-0으로 이기다가 막판에 동점골을 내준 것, 최근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이라크에 승부차기 끝에 진 것 등 세 경기를 꼽았다.

### 올림픽 축구대표팀 차기감독 선임 난항

대한축구협회가 펠 베어백 감독의 사퇴로 공석이 된 올림피아드 대표팀 차기 사령탑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각급 대표팀 선발 권한을 가진 축구협회 기술위원회(위원장 이영무)는 2일 서울제회의를 열어 빠르게 이날 오후 차기 사령탑을 확정, 발표하려 했지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맞서는 바람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축구협회는 가능한 3일 중 올림피아드 차기 사령탑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영철 협회 홍보국장은 “어쨌든 오늘은 발표를 할 수 없게 됐다. 기술위원 5명이 시내 모처에서 모여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협회 주변에서는 이른바 ‘홍명보 대세론’에 일부 기술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이 과정에서 현직 감독으로 있는 후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영철 국장은 “후보자 중에는 현직에 있는 분도 있다. 결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어떤 분을 뽑아야 할지 아직은 짧은 시간에 올림피아드 대표팀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영표 1~2주내 회복”

#### 토트넘 올 감독

무릎 수술 후 재활훈련을 해온 이영표(30·토트넘)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개막에 맞춰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일(이하 한국시간) 토트넘 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틴 올 감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지훈련을 마치고 팀 내 부상자들의 상태를 전하면서 이영표가 1~2주 안에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감독은 “이영표가 컨디션 조절을 잘 하고 있다. 바라건대 1주 또는 2주 안에 정상적인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밤 이영표를 진단한 전문가가 그의 회복 과정에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11일 선덜랜드와 원정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2007~2008 시즌을 시작한다. 올 감독의 말대로라면 이영표는 정상 컨디션으로 개막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밀란의 데안 스타코비치(등번호 5번)가 2일 오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레 시즌 친선경기에서 프리킥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성 없는 맨유, 인터밀란에 2-3 역전패 프레시즌 친선경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06~2007 시즌 챔피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팀 인터밀란에 무릎을 꿇었다.

맨유는 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 홈구장에서 열린 인터밀란과 프레 시즌 친선 경기에서 2-3으로 패했다.

골문은 맨유가 먼저 열었다. 전반 17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크로스를 올리자 반대편

페네타 박스에 있던 웨인 루니가 첫 골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세리에A 최강팀 인터밀란의 반격은 더 강했다.

전반 21분 스트라이커 다비드 수아조가 동점골을 넣

었고, 6분 뒤에는 ‘바이킹 군단 간판 킬러’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역전골까지 뽑아냈다.

기세가 오른 인터밀란은 공세를 이어가며 전반 34분 수아조가 세 번째 골을 터트리며 3-1로 달아났다.

7만3천여 홈 팬들의 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맨유는 후반 13분 호날두의 프리킥을 인터밀란 공격수 아드리아누가 머리로 걷어낸다는 것이 그대로 골문에 빨려들어간 골을 만회했지만 더 이상 추격전을 펴지는 못했다.

한편 맨유는 5일 밤 11시 2007~2008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알리는 ‘커뮤니티 실드’ 단판 승부로 지난 시즌 FA컵 우승팀 첼시와 맞붙는다.